

<b>이리공업고등학교</b>  570-956 익산시 동서로14길 30-2	바른품성을 지닌 창의적 인간육성 <b>가 정 통 신 문</b> 교무실 : 858-3712, 행정실 : 858-3711	제 2016 - 81 호 통지대상: 학부모
<b>제목 : 2016 인구교육 선도학교 - 양성평등을 위한 가정 통신문</b>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는 반드시 사회적 역할에서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화는 신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동양이나 서양에서 여성을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차별과 편견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여성을 억압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문화가 지배하였으며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날이 개선되어 성차별적인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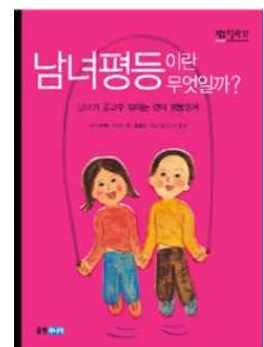
이에 본교는 양성평등을 위한 도서를 학부모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와 아래 도서를 읽고 남성과 여성의 특성, 차이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장(場)이 가정 내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 < 추천 도서 >

#### 「남녀평등이란 무엇인가?」

- 주느비에브 프레스 지음, 정고미라 옮김, 웅진주니어, 2008.
- 남녀가 유별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날에는 상당수의 학교가 남녀 공학이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이렇게 남녀 분리가 없어지는 것이 곧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것일까? 때로는 남녀 분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분리와 통합, 평등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생각을 쉽고 편안하게 들려준다.

유럽 의회 의원을 지낸 글슨이는 학교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자세를 보인다. 자신의 견해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도 그런 실천적 자세의 결과인 듯 하다. 여기에 여성학 연구자의 번역은 글쓴이의 통찰을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발랄하고 재미있는 그림은 자칫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는 철학 이야기를 흥미롭고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 앨런 비즈·바바라 피즈 지음, 이종인 옮김, 김영사, 2011.
- 생물학적 차이로 풀어보는 남가 여, 그리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 이 책은 100개국, 51개 언어로 번역되어 남녀 심리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과학적 분석과 실증적 사례로 남녀 간의 차이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남녀 심리학 개론이다. 넘치는 해학과 유머, 일상 생활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지속되고 있는 남녀 간의 미스터리를 유쾌하게 파헤치고 있다. 먼저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왜, 어떻게 다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 시원히 밝혀내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 평화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유리한지 등 개인의 내면 심리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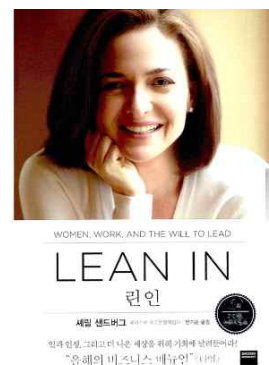
### 「양성평등 이야기」

- 권인숙 지음, 청년사, 2007.
- 이 책은 다섯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여성과 남성,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 세 번째 이야기는 여성을 지배하는 외모 지상주의, 네 번째 이야기는 성폭력,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각각 사회적인 성차별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 권인숙은 중학생인 자신의 딸과 남자 조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생각이 역사적으로 관습화된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 성차별 등이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 「린인(Lean In)」

- 셰릴 샌드버그 지음, 와이즈베리, 2013.
- 셰릴 샌드버그는 미국 재무장관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구글과 페이스북 초창기에 임원으로 합류하여 광고 수익모델을 만들 연매출 수직 상승의 신화를 이뤄낸 인물이다. 이 책의 원제는 '기회에 달려들어라: 여성, 일, 그리고 주도하려는 의지'다. 샌드버그는 혁명을 내면화해 스스로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도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젊은 여성 직원이 찾아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할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썼다. 또 미국 정·재계를 두루 거친 선배로서, 수 천 명의 인재를 고용하고 이끈 리더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털어놓았다. 더불어 배우자와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 점점 과중해지는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 연봉협상, 이직과 승진 등 커리어와 관련된 유용한 팁들도 가득한 책이다.



⇒ 추천도서는 본교 1교무실 인구교육 도서 비치대 또는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16. 8. 26.

이 리 공 업 고 등 학 교 장 최 동 암

